

자본주의선거제도의 반동적본질

김 희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의 부르조아 정당들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인 자본가들의 집결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87권 250페이지)

자본주의선거제도의 반동적본질을 정확히 해명하는것은 자본주의선거와 그에 따라 조직되는 부르조아정권의 반동적, 반인민적성격을 옳바로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본주의가 생겨난 때로부터 부르조아반동들은 선거를 국가권력조직의 기본형식으로 선언하고 《국민의 주권》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선전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생겨난 이후 수백년의 력사에서 인민대중은 언제 한번 주권의 주인으로 되어본적이 없으며 주권은 오직 부르조아지의 수중에서 유지되어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의 총적목적은 한마디로 말하여 부르조아반동들이 저들의 정권을 어떻게 하나 유지하자는것이다. 그리하여 부르조아반동들은 여러가지 제한조건을 내걸고 인민대중의 선거참가를 최대한 제한시키며 선거를 철저히 부르조아정당들간의 경쟁으로 되게 함으로써 저들의 집권야욕을 실현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자본주의선거제도는 독점부르조아지의 한 정치집단으로부터 다른 정치집단으로의 정권의 주기적이양을 합법화하며 집권을 위한 정당들사이의 경쟁을 조직하는 기만적이며 반인민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법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무엇보다먼저 독점자본가계급의 한 정치집단으로부터 다른 정치집단으로의 정권의 주기적이양을 합법화하는 형식과 방법을 규정한 기만적인 선

거제도이다.

자본주의선거제도가 독점자본가계급의 한 정치집단으로부터 다른 정치집단으로의 정권의 주기적이양을 보장하는 반동적인 선거제도로 되는것은 그것이 그 어떤 다른 계급, 정치세력파도 정권을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려는 부르조아지들의 정권독점야욕을 반영하여 세워지는 선거제도인 것과 관련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2개 또는 여러개의 부르조아정당이 선거경쟁을 통하여 엇바꾸어가면서 집권한다. 표면상으로 보면 이것은 마치도 선거자들이 선택한 민주주의인듯이 보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부르조아지만이 정권을 독차지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울수는 없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물질적부에 대한 점유와 분배는 심히 불평등하다. 많은 물질적부를 차지하고있는 부르조아지에게 있어서 정권독점은 필수적이며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르조아지는 정권을 저들만이 장악하고 그것을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강권으로 만들어야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여 저들의 끝없는 치부와 향락을 보장할수 있으며 그 어떤 정치세력파도 정권을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여야만 자본주의사회를 저들의 의사대로 통치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제도는 부르조아지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정권을 주기적으로 물려주기 위한 형식과 방법을 규정한 반동적인 제도로 되게 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선거제도를 규정한 선거법과 선거규정, 선거세칙들에서는 헌법에 규정한 선거의 기본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상제한, 재산제한, 거주제한, 지

식제한, 나이제한, 직업제한 등 여러가지 제한조건들을 설정하여 빈곤자와 유색인종, 청년들과 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선거에서 배제하고 선거를 반동적인 부르조아계급내에서의 폐쇄적인 선거로 조직 실시한다. 기탁금제도, 선거기금제도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선거를 돈과 재부를 거머쥔 부르조아지들의 금권선거로 만들며 선거선전의 《자유》를 법화하는것을 통하여 일체 선전수단을 장악한 부르조아지만이 선거경쟁을 벌림으로써 저들의 당선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게 한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철두철미 부르조아지의 정권독점을 실현하고 유지하는데 복무하는 기만적인 선거제도이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다음으로 집권을 위한 정당들간의 경쟁을 조직하는 형식과 방법을 규정한 반인민적인 선거제도이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부르조아정당들이 정치무대에 등장하여 자기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리고있던 시기에 정당제도와 결부되어 확립되었다.

일당제, 량당제, 다당제로 구성되는 부르조아정당제도에서 선거와 밀접히 련관되는 정당제도는 다당제와 량당제이다.

자본주의선거와 결합되는 부르조아다당제는 정당들의 조직과 활동에서 《자유》, 《평등》과 그리고 정당들간의 선거경쟁에 의한 집권을 목표로 내세운다. 다당제에서 사람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당들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참가하게 된다.

부르조아반동들은 다당제가 마치 객관적현실과 공화제의 요구에 맞는 민주주의적인 정당제도인것처럼 미화분식하면서 그것을 적극 옹호, 조장한다. 부르조아반동들이 다당제를 부르짖는것은 정당활동과 선거에서 진실로 민주주의를 보장해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부르조아반동들이 다당제를 통하여 노리는 근본목

적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분렬약화시키려는데 있다.

부르조아반동들은 다당제를 통하여 인민대중을 분렬약화시키는 한편 부르조아지들과 반동들을 규합하여 큰 정치력량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다당제를 실시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는 독점자본가계급의 정당은 거대정당으로 되고 다른 정당들은 소수 정당으로 되어 다당을 이루는 상태가 형성된다.

부르조아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의 결과 다당제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상태는 자본주의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사회민주주의정당과 소부르조아정당 그리고 일부 군소정당들이 선거전에 나서지만 이런 정당들은 력량상 약한것으로 하여 독점자본가계급의 거대정당 또는 정당연합에 각개격파당한다. 결과 이런 정당들에 망라되어 선거에 참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투표는 사실상 무효한것으로 되고만다.

결국 자본주의선거와 결부되는 부르조아다당제는 인민대중을 사분오렬시키고 진보적정당들이 선거전에 나서지 못하게 하거나 나서는 경우에는 독점자본가계급의 규합된 력량인 독점자본가계급의 거대정당 또는 정당연합에 각개격파당하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투표로 표명되지 못하도록 중도에서 해소말살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다당제와 마찬가지로 량당제도 역시 선거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중도에서 해소말살하는 작용을 한다.

자본주의선거와 유착되는 부르조아량당제는 전국민의 《복리》와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으로 미화분식되는 독점자본가계급의 두개의 대정당을 정치무대에 내세우고 집권도 오직 이 두 정당만이 하게 하는 정당제도이다.

부르조아반동들은 량당제를 통하여 그 어떤 제3의 강력한 대정당이 출현하는것을 절

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독점자본가계급의 두개의 대정당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해주며 진보적정당들이 정치력량으로 자라나는것을 철저히 억제한다. 부르쥔아반동들은 두 정당외에 그 어떤 정당도 정권조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정부구성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권은 오직 두 당의 수중에 있게 한다.

량당제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중도에서 해소말살하는 반동적인 정당제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독점자본가계급의 두 정당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는 조건에서만 선거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정당제도인것과 관련된다.

미국을 비롯하여 오늘 량당제를 실시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다당제를 실시하고있는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제한원칙의 요구를 완화함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듯이 하고있다. 그러나 량당제에서 인민들에게 부여되는 《선거권》은 독점자본가계급의 동질적인 두개 정당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는 조건에서만 선거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선거권》이다. 다시말하여 량당제에서 《선거자》들에게 부여되는 《선거권》은 독점자본가계급의 동질적인 두개 정당중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는 사람만 투표에 참가하고 어느 정당도 지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선거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선거권》이다.

인민대중은 결코 자기를 억압착취하는 적대계급인 독점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정당들을 지지할수 없다. 때문에 량당제선거에서는 《선거자》로 된 수많은 인민대중이 독점자본가계급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반대하여 선거에서 기권하게 된다. 량당제를 통하여 부르쥔아반동들이 노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에서 기권하는것은 곧 선거에서 배제되는것과 같다. 그러므로 량당제는 본질

상 인민대중을 선거에서 배제할 목적을 추구하는 제도로 된다.

량당제에서 부르쥔아반동들은 회유와 기만, 위협공갈과 매수 등 여러가지 비렬한 방법으로 계급의식, 투쟁의식이 높지 못한 사람들을 선거에 참가시킨다. 따라서 선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투표는 그들의 진실한 의지로부터 출발하는 투표인것이 아니라 독점자본가계급에게 우롱당하는 투표로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량당제는 인민대중을 선거에서 배제하여 그들이 선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본의아닌 투표를 하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의사를 해소말살하는 반동적작용을 하게 된다.

부르쥔아다당제와 량당제는 다같이 인민대중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투표로 표명할수 없게 억제하며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상 다를바가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이 두 정당제도중 어느것을 도용하는가 하는것은 나라들마다 다르다. 대체로 《의회주의》보다도 《삼권분립주의》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들에서는 량당제를 리용한다.

현대제국주의에서 다당제, 량당제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정당선거의 반인민적성격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선거제도가 그 어떤 다른 계급, 정치세력파도 주권을 나누지 않고 그것을 독차지하려는 독점자본가계급의 정권독점야욕을 반영하여 세워지고 주권조직에 인민대중을 끌어들여 그들을 거수기로 리용하기 위한 기만적이며 허위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제도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자본주의는 그것이 생겨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기간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왔지만 자본주의정권이 부르쥔아독재가 아닌 그 어떤 다른것으로 되여본적이 없으며 정권은 오직 부르쥔아지

의 수중에만 장악되어있었다.

선거가 부르조아지의 정권장악을 위한 유리한 방법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정당들의 활동은 순수 《공직획득》과 권력장악에 국한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여러가지 주의주장과 사조가 성행하며 수많은 정당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부르조아정당들은 사회공동의 요구와 리익이 아니라 부르조아지의 요구와 리익만을 대변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정당들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보적인 정당들의 활동 역시 이들을 정치에서 배제하려는 부르조아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인하여 선거에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선거제도에는 바로 정권쟁탈을 위한 정당들간의 선거경쟁에 인민들을 몰아넣고 그들을 거수기로 리용하여 부르조아정권을 조작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제되어있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진보적인 강령과 활동계획을 내세우고 투쟁하는 정당들과 단체들, 재정적토대가 빈약한 정당들을 선거에서 배제하고 선거가 반동적인 부르조아정당들사이의 금권경쟁으로 되게 한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이와 함께 후보자를 인민대중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거전에 나선 정당별로 출마시키게 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선거를 정당들사이의 집권을 위한 경쟁으로 되게 한다.

자본주의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선거법과 선거규정에서는 선거에 참가하는 선거자들의 투표를 개별적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의사표시로 되게 하며 선거된자들은 자기를 출마시킨 정당의 대표로서 그 당앞에서만 자기 사업을 보고하고 책임질뿐 선거자들과는 아무런 련계도 가지지 않는다는것을 규제함으로써 부르조아정당들간의 집권을 위한 경쟁인 정당선거의 구체적실현을 보장한다.

부르조아정당은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것을 자기 생존의 기본방식으로 하는 부르조아지의 반동적인 정당인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부르조아반동통치배들은 독점자본가계급의 한개 또는 두개의 정당에 특권적지위를 부여하여 그 당들만이 정권을 장악하게 하거나 여러 정당들이 선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에게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주어 권력을 장악할수 있게 한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철두철미 부르조아계급의 반동적인 정당들사이에서만 진행되는 주기적인 정권이양을 《민주주의》간판으로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만적이고 반인민적인 부르조아선거제도에 의하여 수립되는 자본주의정권의 반동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참답게 실현해주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야 할것이다.